

민주당 정세균 대표에게 듣는다

“호남민 회초리, 환골탈태 계기될 것”

지난 4·29 재보선에서 민심은 또 한번 절묘한 선택을 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는 호된 심판을, 제1야당인 민주당에는 희망과 반성의 계기를 부여한 것이다.

광주일보는 지난 7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동영 의원의 복당 문제와 민주당의 향후 진로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날 인터뷰에서 정 대표는 수도권 승리를 계기로 민주당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정동영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호남 민심에 대해서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어떻게 보나.

▲이명박 정권의 특권 경제, 일방 독주, 민주당의 후퇴를 심판한 선거였다. 한나라당의 전패



조만간 '뉴 민주당 플랜' 제시

10월 전후 지지율 20%대 자신

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민주당 개혁세력에 희망의 근거를 심어줬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4·29 재보선 가운데 호남에서 전패하고도 승리로 선출할 수 있는 것인지.

▲민주당의 카운터 파트는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과 대결이 펼쳐진 인천 부평을, 시흥 시장 선거에서 모두 이겼다. 이 점에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재보선에서 나타난 호남 민심을 어떻게 보는가.

▲한 마디로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민주당에 정신 차리라고 호된 회초리를 때린 것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전주 선거는 이와는 다르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인사(정동영 전 통일부장관)가 당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아주 이례적이고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민주당의 진정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호남 전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승리한 것은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해 유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호남이 '회생'되는 전국정당론은 논리의 비약이고 실제도 없는 마타도어다.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누가 호남의 회생을 얘기할 수 있는가. 지금껏 호남이 흘린 눈물과 좌절만으로 충분하다. 특정 지역의 회생을 담보로 하는 전국정당론은

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정동영 전 장관의 복당에 대해 '비율을 치러야 한다'며 사실상 복당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공당이다. 당헌과 당규, 원칙과 규율이 있다. 다만, 당헌과 당규를 넘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복당이 가능할 것이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민주당 복당을 내걸고 당선된 정동영 의원과 신권 의원의 입당을 막는 것은 선거로 표출된 전주 민심에 반하는 것 아닌가.

▲전주의 선거 결과가 그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한다. 그들은 전투에서 이겼는데는 몰라도 전쟁에서는 패배했다. 결과가 중요한 만큼 과정도 중요하다. 그들이 사익을 위해 당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재보선에서 승리했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은 아직 10% 중반에 머물고 있다.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 지지율은 탄탄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하락하면서 양 당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당초 4월 재보선을 전후해 지지율 20%대를 넘기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박연차 로비 파동과 내부 분열 등

의 의외내환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오는 10월 재보선을 전후해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당의 목표는 집권이다. 정 대표가 내세울 수 있는 정권 교체 청사진이 있다면.

▲대선과 총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인재 영입에 나섰다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당의 당세가 그만큼 취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수도권 승리를 계기로 인재들의 발길이 풀리고 있다. 여기에 조만간 '뉴 민주당 플랜'이 제시된다. 이는 곧 10월 재보선 승리와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권교체에 나서겠다.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꾸준히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조만간 그 결과물인 뉴 민주당

“정동영 복당 아직은 때 아니다”

강운태 복당 신청 땀 적극 검토

플랜이 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정동영 전 의장에 대한 공천 배제도 변화와 쇄신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뉴 민주당 플랜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 정체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진보성을 강화, 한나라당과의 차별화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5+2 광역경제권’ 문제 등 민주당 지도부가 그동안 지역 현안에 소홀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F1 지원비 처리를 직접 챙기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대에 못 미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겸허하게 반성한다. 그러나 소수 야당으로서 힘에 부치는 점도 있었다. 앞으로 지역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에 대한 입장은.

▲일단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 검찰이 국민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현 정권과 관련된 의혹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현재 무소속으로 있는 강운태 의원의 복당 문제도 상당한 관심사다.

▲당헌 당규상 1년의 시한이 경과됐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이 복당을 신청한다면 합당한 논의 절차를 거쳐 복당을 적극 검토하겠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지난해 5월12일 8만7천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쓰촨 대지진 1주년을 앞두고 지난 9일 중국 쓰촨성 베이촨 마을에서 한 초로의 중국 여성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모두 죽고 나만 살아남아...” 아직도 악몽중

중 쓰촨성 지진 1주년... 피해복구 공정률 85%

230여만명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 유혹 시달려

지난해 5월12일 중국 쓰촨성을 강타한 규모 8.0의 대지진에 시달린 중국인들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최고지도부는 12일 8만6천여명의 사망자와 천문학적 재산피해를 남긴 쓰촨대지진 1주년 기념일을 맞아 지진 피해현장을 찾아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생존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자살 유혹에 시달리는 생존자들 = 콘크리트 덩어리 속에서 구조된 쓰촨성의 생존자 수백만명은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아픔과 고통의 순간을 잊지 못하고 정신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쓰촨대지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4천480만명에 달한다면

서 국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산출법을 적용하면 이중 230만명이 정신적인 후유증을 앓고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진 생존자들은 가족을 보ろ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등으로 끊임없이 자살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는 5-6천명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망자 8만6천여명 중 학생 5천여명 = 쓰촨대지진으로 희생된 사람은 8만6천633명으로 공식 확인됐으며 이중 어린 학생들이 무려 5천335명에 달해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또 학교 건물 부실시공에 대한 비난이 빚발치자 학생 사망자 수를 공개하지 못했던 쓰촨성 정부는 쓰촨

대지진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학생 수가 5천335명에 달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지진 피해복구 공정률 85% = 지진 생존자들의 아픔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지만 쓰촨대지진으로 붕괴된 가옥과 도로 등 하드웨어 재건작업의 공정률은 85%에 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년간 3천600억위안(7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진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사업을 벌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내년 9월까지 재건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쓰촨대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중국에서 두번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대대적인 재발 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5월12일을 '자연재해 예방의 날'로 공식 지정하고 첫 자연재해 예방의 날인 오는 12일 자연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백서를 처음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신종플루 감염자 4천명 넘어서

노르웨이서도 첫 감염사례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 감염자가 4천명을 훨씬 넘어섰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30분(제네바 현지시간) 현재 WHO에 공식으로 보고된 신종플루 감염자 수는 멕시코와 미국을 비롯한 29개국에서 4천379명으로 증

가했다. 이 중 멕시코와 미국의 감염자는 각각 1천626명과 2천254명이었고, 캐나다 280명, 스페인 93명, 영국 39명, 프랑스 12명, 독일 11명 등이었다.

사망자는 멕시코 48명과 미국 3명, 캐나다 1명, 코스타리카인 1명 등 모두 53명이다.

특히 미국 워싱턴주에서 지난 9일(현지시간) 세번째로 신종플루 관련

사망자가 보고됐다. 워싱턴주 보건당국은 이날 30대 남성이 신종플루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밝혔다.

이와함께 일본 후생노동성은 10일 국내 남자 고교생 1명이 추가로 신종플루 감염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의 신종플루 감염자는 4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노르웨이 보건당국은 2명의 노르웨이 학생이 멕시코에서 돌아온 직후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됐다고 밝혔다. 이는 노르웨이에서의 첫 신종플루 감염 사례다. /연합뉴스

경찰 메가경찰학원 www.gmega.co.kr 226-5050

7.9級 공무원 소직렬 개강 5월 15일(주)아름다운모임

제주도 여행 2박3일 89,000원